

무려 5년 만의 개인전이다. 그리고 달라졌다. 자신이 등장하는 우스꽝스러운 사진과 영상작업을 통해 제도와 권력, 가치체계를 비웃던 작가 옥정호의 세 번째 개인전 <거룩한 풍경(The Holy Landscape)>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전시된 작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강화도 갯벌에서 고난도의 요가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과 흔히 발견되는 우리 삶의 단편들을 포착하여 병치한 풍경 사진이 그것이다. 전혀 연관이 없을 것만 같은 두 종류의 사진을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놓은 전시는 익숙한 옥정호식 접근법으로부터도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듯 보이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정성스러운 관찰을 요구한다.

일단 검은 정장을 잘 차려입고 진흙탕 속에서 요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은 그리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이 장면들은 2007년의 <충무로 프로젝트>와 <안양 무지개>를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상하이의 오성기>(2008)나 <아우라 걸>(2005), <기념사진>(2001-2005) 시리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맥락에 위치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야구장과 경마장의 관중석을 대비하거나, 놀이공원과 도시 근교의 산봉우리, 혹은 저수지 낚시터와 사찰의 풍경을 대비, 병치하여 유사한 듯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엮어내는 이미지들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 배치시킨 풍경들은 꽤나 낯선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보면, 사실 진흙탕 요가 작업 역시 우리의 성급한 추측과는 달리 이전 작업들 속에 옥정호가 슬쩍슬쩍—그러나 노골적으로—끼워 넣던 실소(失笑) 유발 코드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딘지 모를 생경함을 제공하기도 한다. '빨(개흙) 밭에서 빨(허튼) 짓 하기'와 같은 옥정호식 위트가 여전히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 기저에 작가 자신의 극단적인 신체적 수행과 그로 인한 고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달라진 옥정호의 태도, 그리고 옥정호가 부재하는 낯선 풍경 사진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도 같다.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기이하게 뒤틀려진 삶의 풍경은 이전의 작업들에서 비웃고 비꼬아왔던 그 제도와 권력, 가치체계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적, 사회적 트렌드로, 웰빙 라이프의 꽃으로 자리 잡은 요가를 새삼 원래의 맥락—종교적, 영적 수행의 방식—속에 되돌려놓는 (전혀 우습지 않은) 고통스러운 퍼포먼스를 통해 옥정호는 이 번잡스럽고 기이한 현실세계의 혼돈과 집착에 정면으로 맞서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유쾌하고 즐거웠던 옥정호를 변화시킨 동인이 무엇이었던, 결과가 어떠했던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전시를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더 이상은 유머와 놀이로 읽히지 않는 옥정호의 수행적(performative) 행위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